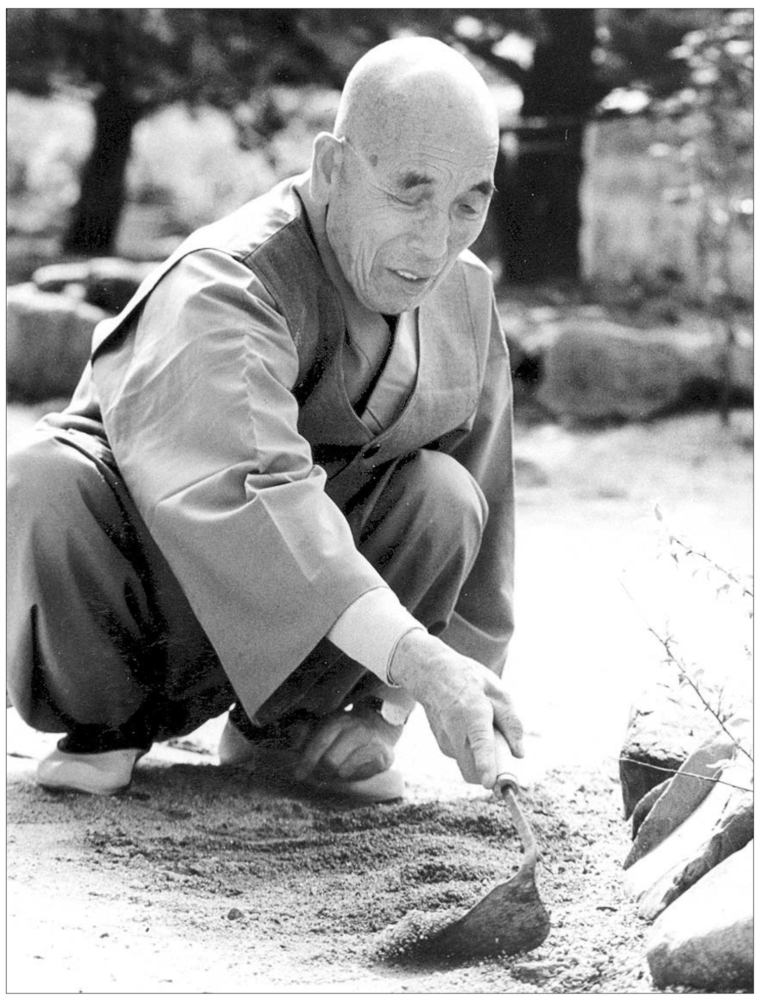
열반게

일물탈근진(一物脫根塵)	한 물건이 이 육신을 벗어나니
두두현법신(頭頭顯法身)	두두물물이 법신을 나투네.
막론거여주(莫論去與住)	가고 머뭄을 논하지 말라
처처진오가(處處盡吾家)	곳곳이 나의 집이니라.

禪旨·자애 갖춘 거목…본분사 몰두 귀감

노천당 월하 대종사 행장



◇호미질을 하고 있는 생전의 월하 스님. 스님은 '노동도 수행' 임을 늘 강조했다.

12월 4일 원적에 든 월하 대종사는 격외(格外)의 선지(禪旨)와 자애(慈愛)를 갖춘 선지식으로 종단발전은 물론 승풍 진작에 큰 그림자를 드리운 거목이었다.

1915년 부여에서 윤씨 집안에 태어난 스님은 1933년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 성환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운수의 삶을 시작했다. 이때 부친과 형이 세 번이나 절에 찾아왔으나 스님의 견고한 의지와 신심을 꺾지 못했다고 한다. 1940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당대의 고승인 구하 스님의 수제자가 되면서 거목으로 성장할 인연이 무르익었다.

"지금까지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라는 상좌의 물음에 "금강산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지"라는 한결같은 대답을 하셨던 스님은 은산철벽을 뚫겠다는 신념으로 참선을 통해 깨달았다.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을 역임했지만 출가 본분사에 매진했던 때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회고하는 스님의 말씀은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

스님은 1940년 오대산 방한암 선사 회중(會中)에서 몇 차례의 하안거를 성만한 후 제방의 선원에서 5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젊은 시절 천성산 내원사에서 치열한 용맹정진으로 본각진성(本覺眞性)을 깨달았다. 언제 어디서든 당당한 주인으로 활달자재한 경지를 드러낸 스님의 수행력은 구하, 경봉, 벽안스님으로 이어져온 불지종가(佛之宗家)의 가풍을 전수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

구도자의 길에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스님은 종단의 어려운 현안마다 이사원융(理事圓融)의 정신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다. 1954년 효봉, 청담, 인곡스님 등과 함께 사찰정화수습대책위원회에 참가해 전국 사찰이 구도도량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교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오늘날 청정비구승단의 초석을 마련했다.

스님의 근검절약은 비단 삼보정재에만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성보박물관과 설법전이 건립될 때, 한푼 두 푼 모아둔 사재를 모두 내놓으며 도량의 위용을 갖추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법문비, 거마비는 물론 신도들이 약값에 써달라며 건넨 돈까지 모두 모았다가 불사금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또한 1992년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건립기금으로 아무도 모르게 1억 5천만원을 보시한 사실을 뒤늦게 안 제자들이 이를 언론에 알리자 오히려 호된 꾸중으로 나무랐다. "제자들이 생신을 챙겨드리려

어려운 현안 이사원융정신으로 해결

효봉·청담·인곡 스님과 불교정화운동

근검절약 철저 … "시주물 독화살처럼 생각하라"

조계종 원로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종단의 요직을 맡으면서 법등의 역할을 자임해온 스님은 철저한 삼보정재관리와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일관해왔다. "시주물을 독 묻은 화살처럼 생각하라"는 당부로 제자와 대중을 일깨워왔던 스님이 동국학원 이사장을 맡았을 때, 당시 인부들이 공사물품에 손을 대는 것을 눈치채고 직접 공사현장에 나가 기와장 하나 하나를 일일이 세면서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고 하면 새벽 일찍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는 일도 허다했다. 자리에 눕기 전까지 빨래와 처소청소를 손수 하였고, 입적 전에 다비식 비용까지 마련해놓았을 정도로 삼보정재의 혜택을 삼가고 두려워했다.

평소 늘 시골할아버지 같은 자비심으로 정변전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던 스님이었지만 스스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19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자 종도들의 염원을 받들어 제9대 종정직을 수락하고 개혁종헌을 이끌어내고 종단화합과 중흥을 도모하는데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8년 수행풍토가 위협받고 종헌이 준수되지 않자, 스님은 유시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자 했으며 스님의 이러한 단호함과 강직함은 정화당시 스님들 사이에서 "윤고집"으로 통했을 정도였다.

2001년 영축총림 방장으로 재추대된 스님은 항상 근엄하면서도 쓸모 없는 권위를 버리고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하심과 자애를 베풀었다. 특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는 백장청규를 몸소 실천해온 스님의 가르침은 영축산 자락에 드리운 불은(佛恩)처럼 뚜렷이 살아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스님이었지만 상좌들에게는 허물을 남몰래 감싸주는 자애로움으로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환속한 어느 상좌의 아내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한 스님이 직접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미역을 사들고 골목골목을 물어 환속한 상좌를 찾아간 일화는 스님의 소박한 인간미와 깊은 제자사랑을 짐작케 한다. 또한 사중의 큰돈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상좌에게 스님의 거마비를 내어 상좌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했다.

"알아서 해라." 월하스님은 제자들이 어떤 일의 허락을 청할 때마다 언제나 이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보다는 알아서 하라는 말로 허락과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했던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많은 제자들은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 덕분에 스스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함부로 행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통도사=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도사 분향소 표정

스님 주석처 정변전에 분향소

노무현 대통령 조화·조사 보내

노천당 월하스님이 원적에 든 12월 4일 통도사는 분향소 설치와 장례의식 준비로 분주했다. 늦은 오후부터는 10일 종단장으로 봉행될 장례의식 준비를 위해 종단 관계자들이 속속 통도사에 도착했다.

월하스님의 법구는 스님의 주석처인 정변전에 안치되었으며 상좌들은 이곳에 임시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산스님,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이 분향소를 찾은 것을 비롯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법조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성본 스님 등 이날 늦게까지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5일 오전 분향소가 설법전으로 옮겨졌고 이날부터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6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분향소를 다녀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향소에 조화를 보낸데 이어 5일 "대종사께서 남기신 높은 법의 향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린다"는 내용의 애도문을 발표했다.

통도사는 월하스님의 입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엄산림법회를 스님의 장례 기간인 4일부터 10일까지 모두 취소됐다. 그러나 화엄산림법회에 참석했던 대중들은 기도와 정진을 늦추지 않은 가운데, 영축총림의 큰 어른 월하스님의 열반을 아쉬워했다.

화엄산림에 입제, 기도정진 중이던 보안심(73) 보살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신 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라도 스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정진할 것"이라며 합장발원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10일 통도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뤄지며 다비식은 기존 다비장이 아닌 극락암 가는 길에 위치한 공터에서 전통적인 다비의식으로 봉행된다.

통도사= 천미희 기자

buddhanews.com에 입적기사 종합

◇분향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열반·원적 무슨 뜻인가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업연(業緣)을 따라 윤회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큰스님들이 잇따라 세연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스님들의 '죽음' 을 표현 하는 단어가 다양해 불자들이 그 '깊은 뜻' 을 궁금해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반(涅槃)은 니르바나(nirvana)의 음역으로 본래 뜻은 '불어 끈다' 는 것. 즉 사바세계의 번뇌들을 불 끄듯 꺼버린 것, 바로 본래 청정의 자성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다. 적멸(寂滅)은 니르바나를 뜻으로 옮긴 것이다. 입적 역시 적(寂)의 경지로 들었다는 말이니 열반 적멸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죽음을 또 다른 경지로 이해하는 데서 시적(示寂, 적멸을 보였다)이나 고적(告寂, 적멸을 알리다), 순적(順寂, 적멸에 순응하다) 등의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시멸(示滅)이란 용어 역시 적멸을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 세상의 인연을 끊고 떠났다는 의미로 서세(逝世)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 더러 엄화(奄化)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는 이승에서의 교화활동을 덮는다는 의미로 세연(世緣)을 다했음을 표현하는 것.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본지는 큰스님들의 열반을 원적이란 단어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 曹溪宗 第九代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 宗團葬 ㊎

訃告

大韓佛教曹溪宗 제9대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7年 12月 4日(陰 11月 11日) 午前 9時 15分
靈鷲叢林 通度寺 정변전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佛紀 2547(2003)年 12月 10日(陰 11月 17日) 午前 10時
■永訣式場: 靈鷲叢林 通度寺
■茶毘場: 靈鷲叢林 通度寺 蓮華臺

문중대표: 초우

상좌: 홍법 청하 초우 현산 운하 서주 태응 약산 운성 목산 정산 현파 성파 신허
산옹 현문 태봉 영도 능연 기봉 진오 용문 일현 청운 자하 중선 향조 현초
목주 수원 주원 해원 관우 백진 오심 남능 만천 성형 노우 증도 증악 지운
방원 해중 석현 광지 수자 고기 현구 성해 두진 명오 성이 지삼 해이 수
병천 성구 기호 종원 성화 성열 성법 지명 항련 지만 성기 지원 우석 현관

법상좌: 두산 수암 청암 성암 황산 중암 운보 여산 만선 양진 거산 송현 건오 금산
중산 수안 철웅 지산 가열 보탑 기호 현오 혜오 동화 철암 죽산 도하 청효
오봉 효산 영랑 도정 성곤 경남 만다 현관 철환 회암 종명 영상 장우 니우
수원 원산 보광 영산 서조 상도 뢰묵 법혜 법조 법운 황산 중암 경희 현선
혜선 보현 법선 명원 혜혜 (무순)

손상좌: 정우 재경 상경 지용 영재 현근 상운 진성 도웅 문성 현기 현원 혜오 혜용
재진 향과 도천 남현 삼경 동주 영수 지운 본원 준수 범해 정안 영노 효선
원근 묘경 묘일 묘원 묘영 보문 묘행 묘산 양관 양행 보안 선준 묘행 묘신
호암 재원 재문 보화 보안 보응 보각 보광 명신 명안 지문 도원 도웅 원천
양현 진산 장해 일승 진오 여해 영하 영월 영도 영봉 영경 석산 법은 수연
동륜 종원 등운 혜원 혜장 홍선 보덕 남도 남곡 남주 덕원 정학 원정 원진
혜우 원묵 원범 정주 시광 명오 신화 원무 선운 마벽 선오 진성 상원 덕진
덕우 도문 덕월 덕문 시공 진공 우보 우학 보덕 남월 동진 효범 대안 조월
삼석 명덕 매물 광산 광석 시원 만행 대운 정로 증관 무진 안우 진법 철
혜초 법진 정헌 태암 우암 소암 중암 성일 주봉 임성 유경 안치 동수 만오
만영 만초 진범 진목 진응 진명 진통 진무 현담 일과 일성 지범 지상 지봉
범준 보명 보원 지석 지성 지혜 지철 범용 남곡 혜일 혜종 혜안 혜봉 혜공
무위 정인 정원 정무 설문 설운 영봉 영곡 영명 영선 광우 다원 성무 초중
선행 선오 성혜 성업 성열 선석 선원 선림 선종 서상 서호 용은 서중 서초
도산 도행 도유 도국 현고 도선 만제 도연 도설 무심 도계 도중 자원 자금
초중

증손상좌: 각원 무유 각광 각현 무영 성원 성법 각성 각문 성진 성화 성전 각평 성안
성민 성밀 각심 성념 성재 성륜 각림 성래 원행 무척 신행 지무 도피안
선철 선각 혜성 혜원 일법 세진 수운 자견 보인 도영 동일 동수 동명 명조
자금 일법

고손상좌: 용주 용성 효성 용린 종백 용제 용봉 하유 지성 만성 용파 한수 범우

■문의 및 연락처: 통도사 종무소
☎ 055-382-7182 / FAX 055-382-7196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曹溪宗 第九代 宗正 老天堂 月下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1면에 이어〉